

Business Focus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August 2025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hyojunglee@kr.kpmg.com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조진희 이사
jinheecho@kr.kpmg.com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sookyungkim@kr.kpmg.com

차윤지 책임연구원
yoonjicha@kr.kpmg.com

최창환 책임연구원
changhwanchoi@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류승희 책임연구원
seungheeryu@kr.kpmg.com

이아름 선임연구원
alee65@kr.kpmg.com

이종민 선임연구원
jlee547@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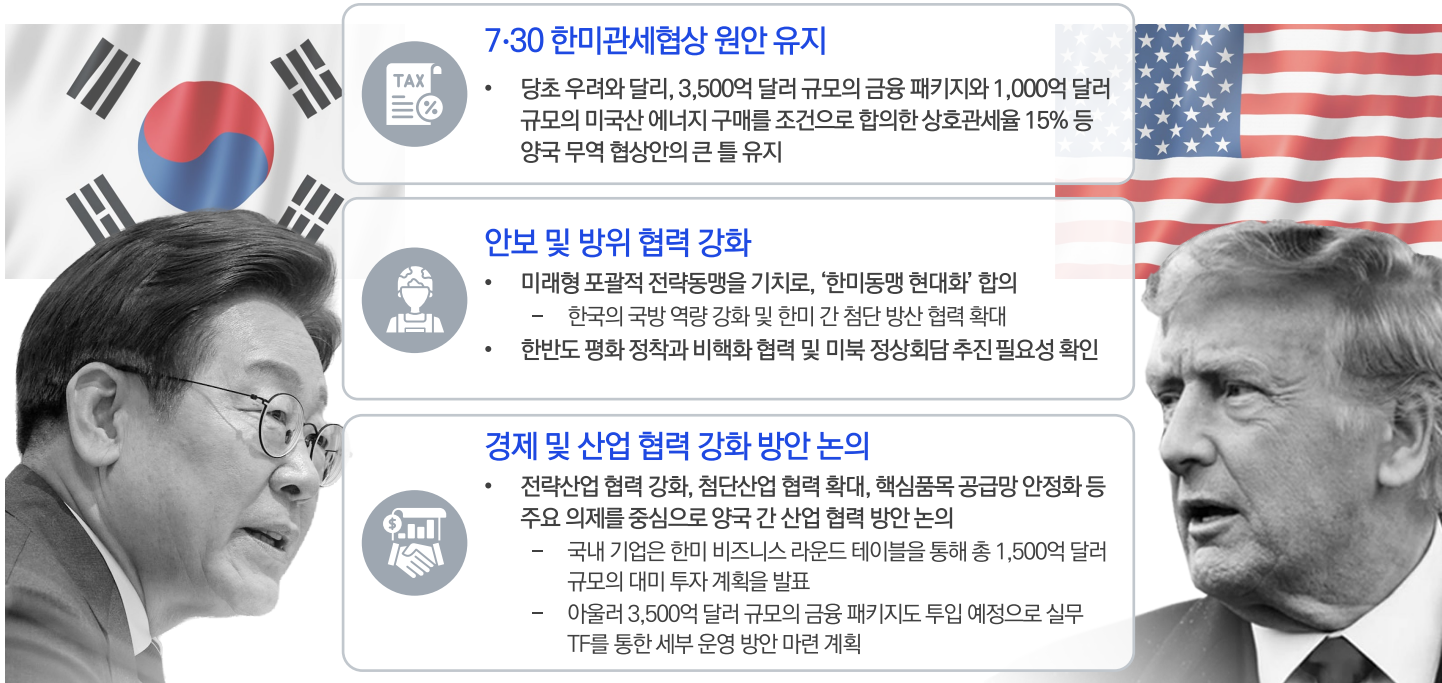
Contents

I.	한미정상회담 Overview	2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7
III.	결론 및 시사점	18

한미정상회담 Overview

2025년 8월 2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됨. 양국 정상은 국익 수호와 동맹 강화를 위해 안보 및 방위 부문부터 경제·산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논의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7-30 한미관세협상 원안 유지

- 당초 우려와 달리,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합의한 상호관세율 15% 등 양국 무역 협상안의 큰 틀 유지



안보 및 방위 협력 강화

-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기치로, '한미동맹 현대화' 합의
 -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및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협력 및 미북 정상회담 추진 필요성 확인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전략산업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 논의
 - 국내 기업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도 투입 예정으로 실무 TF를 통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계획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ee other Business Reports

2025년 7월 발간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안과
국내 기업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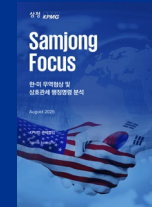


[보고서 다운로드]



2025년 8월 발간

한미 무역협상과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 다운로드]



① 외교·안보: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

양국은 국제 안보 상황에 대응하여 상호 이익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현대화 하는 데 합의함.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음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협상 결과

핵심 의제	현황	미국 정부 입장	결과
한미동맹 현대화 및 국방비 증액	- 전통적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 2025년 국방비 GDP 대비 2.32%인 61조 2,469억 원 (전년대비 3.1% 인상) 2025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4,028억 원 2024년10월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해 2026년 분담금 약 1조 5,192억 원(전년대비 8.3% 인상, 2026~2030년까지 CPI 반영 조정)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지지 - 중국 견제 위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조정 - 인도태평양 역지력 강화, 집단적 부담 분담 - 국방비, GDP 대비 3.8% 수준 증액 - 집단 안보 위해 국방비 증액 - 방위비 분담금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 한미일 공조 확대	-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 현대화 합의 -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국방비 증액 - 한미일 협력 강화
대북 정책: 북핵 억제 및 비핵화	- 대북 억제: 한미연합군 연례군사훈련 지속, 핵-재래식 무기 통합대응체계 구축, 확장억제 논의 체계 강화 2023년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공식 강화 -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억제전략, 위기관리, 비확산 대응 논의	- 한미연합 방위 태세 강화 - 한반도 비핵화 목표 및 미북 정상회담 추진	-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협력 - 미북 정상회담 조속 추진 의지 확인

Source: 국방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② 한국 주요 기업의 대미 투자·협력 강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기대 발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첨단산업·전략산업·공급망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의 장 모색.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 등 40여 명 인사 참석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양국 협력 강화 논의”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조선·항공·원자력·LNG·핵심광물 분야 관련 계약 및 MOU 체결 주요 내용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투자 계획
조선	HD현대-산업은행	Cerberus Capital	• 미국 조선산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 및 미국-동맹국 해양 역량 재건·강화를 위한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삼성중공업	Vigor Marine Group	• 미국 해군 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조선소 현대화 및 상선 공동 건조 등에 관한 MOU 체결
항공	대한항공	Boeing	•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추가 도입(362억 달러) MOU 체결
		GE Aerospace	• 항공기 예비 엔진(Spare Engine) 구매(6.9억 달러)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0억 달러) 추진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에너지빌리티	X-energy·AWS	•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
	두산에너지빌리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 공급용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위한 MOU 체결
	한수원·삼성물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한수원	Centrus	•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
LNG	한국가스공사	Trafigura·Total Energies 등	•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요 기반으로 연간 약 330만 톤 규모의 중장기 LNG 도입 계약 체결
핵심광물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 체결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참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

한국 참석자(16명)

	소속	성명
1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2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3	SK	최태원 회장
4	현대자동차그룹	정익선 회장
5	LG	구광모 회장
6	한화	김동관 부회장
7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8	GS	허태수 회장
9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10	CJ	이재현 회장
11	LS	구자은 회장
12	두산에너지빌리티	박지원 회장
13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14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15	롯데그룹	김상현 부회장
16	네이버	최수연 대표

미국 참석자(21명)

	소속	성명	분야
1	The Carlyle Group	Co-Chairman, 데이비드 M. 루벤스타인	금융
2	Cerberus Capital	CEO, 프랭크 브루노	금융
3	NVIDIA	CEO, 젠슨 황	반도체·AI
4	Applied Materials	CEO, 개리 E. 디커슨	반도체·AI
5	Axcelis	CEO, 러셀 로우	반도체
6	Penguin Solutions	CEO, 마크 아담스	반도체·AI
7	OpenAI	CSO, 제임스 권	AI
8	X-energy	CEO, 클레이 셸	원전
9	GE Vernova	CCO, 로저 마르텔라	원전
10	General Atomics	CEO, 린든 P. 블루	방산
11	Boeing	President and CEO, 스테파니 포프	항공·방산

	소속	성명	분야
12	Anduril Industries	Founder, 팔머 렉키	방산
13	Danaher	CEO, 라이너 M. 블레어	바이오
14	Honeywell	CSO, 디렌드라 바르마	에너지
15	GE Aerospace	President and CEO, 러셀 스톱스	항공
16	AES	CEO, 안드레스 클루스키	에너지
17	General Motors	Chief Procurement & Supply Chain Officer, 실판 아민	이차전지
18	IBM	Vice Chairman, 개리 D. 콘	정보통신
19	Lockheed Martin	President, 마이클 E. 윌리엄슨	항공·방산
20	Google	President, 사미르 사맛	정보통신·AI
21	Motion Picture Association	Chairman & CEO, 찰스 H. 리브킨	문화 콘텐츠

Source: 한국경제인협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한미정상회담 Overview	2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7
III.	결론 및 시사점	18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조선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
안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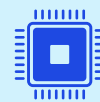
방산

한미동맹 실질적 협력 강화,
K-방산 미래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에너지

LNG 도입선 다변화 및
원자력 파트너십 등 에너지
협력 강화 기대



반도체

현지 투자 확약을 통한
관세 면제와 최혜국 대우
기반 품목 관세 대응



자동차

최소한의 수출 경쟁력 확보,
돌파구는 여전히 필요



이차전지

현지 생산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약·바이오

지속되는 의약품 관세
긴장감 속 바이오 분야
협력 주목



농식품

한국 농가 보호선은
유지됐으나, 추후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



디지털

디지털·AI 협력 논의 ...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
압력은 확대 전망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조선 》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 안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 마련

미 해군 MRO 및 조선소 현대화로 미국 조선산업 보완과 한국 조선산업 입지 강화 기대

■ 한미 조선산업 부흥과 해양 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성과 확보

-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MASGA¹ 구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으며,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방안으로 한국산 선박 구매와 미국 내 공동 건조 추진을 언급
- HD현대·산업은행·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이 추진하는 미국 조선·해양 인프라 공동 투자 펀드 MOU와 삼성중공업·미국 비거 마린 그룹이 체결한 해군 MRO·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파트너십 MOU를 통해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이 본격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추진 기업과 협력 사항

참여기업	주요 내용	세부 협력 사항
HD현대·산업은행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 (Cerberus Capital)	미국 조선·해양 인프라 공동 투자 펀드 MOU 체결	• 서버러스가 보유한 필리핀 수빅(Subic) 조선소 활용, 건조·기술 이전·인력 양성 협력 •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 및 해양 공급망 안정화 기여
삼성중공업 ·미국 비거 마린 그룹 (Vigor Marine Group)	미 해군 MRO 및 조선소 현대화·공동 건조 협력 MOU 체결	•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 및 조선소 현대화 사업 협력 추진 •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선박 공동 건조 및 미국 조선 역량 강화 참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산업 재건 전략)

■ 미국 조선소 현대화·공동 건조를 통해 고부가선박 분야 기술 우위 강화 기대

- 미 해군 MRO 및 군수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미국 내 조선소 합작·현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약화된 미국 조선산업을 보완하는 동시에 한국 조선산업은 매출 기반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미국과 조선산업 공동 건조, 기술 지원, 인력 양성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

최근 5년간 미국의 선박 신규수주 및 점유율

연도	전 세계		미국		미국 점유율	
	척	천 CGT	척	천 CGT	선박수 기준	CGT 기준
2020	1,384	27,291	10	74	0.72%	0.27%
2021	2,351	56,529	8	60	0.34%	0.11%
2022	2,102	52,369	10	136	0.48%	0.26%
2023	2,288	48,798	7	64	0.31%	0.13%
2024	2,159	60,332	2	22	0.09%	0.04%

Source: Clarksons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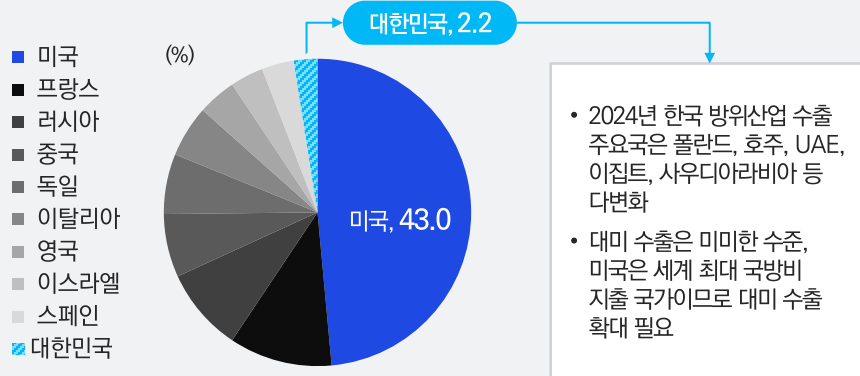
방산 》 한미동맹 실질적 협력 강화, K-방산 미래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한국 방산, 세계 10위 수출국으로 발전했으나 지속 성장을 위해 美 핵심 방위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필요

■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상위 10위지만 대미 수출은 미미

- K-방산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2%로 전 세계 10위권 (2020~2024년)
- 2024년 K-방산 수출 주요국은 폴란드, 호주,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으로 다변화되었지만 대미 수출은 미미한 수준
-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방위산업 강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국방 예산 지출 국가로 K-방산 성장을 위해 대미 수출 필요

2020~2024년 전 세계 상위 10대 무기 수출 국가



-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 분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 부각
- 광범위한 분야 중 하나로 '핵심 광물'이 있으며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한국 고려아연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 MOU 체결.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으로 방위·우주산업의 전략 광물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실질적 협력 관계를 K-방산의 대미 수출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핵심 방산 분야 내 K-방산 경쟁력 강화는 필수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미국 국방비 지출 핵심 분야



Source: SIPRI Yearbook 2025 Summary,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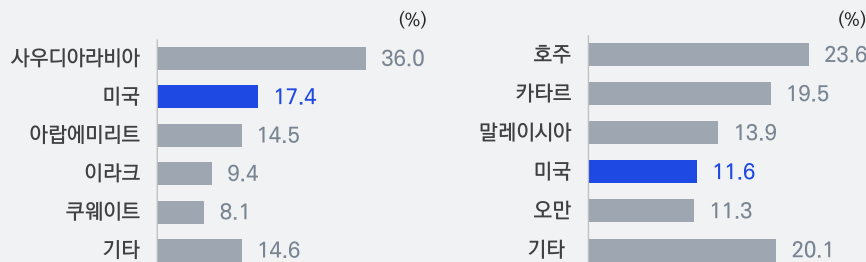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에너지 》 LNG 도입선 다변화 및 원자력 파트너십 등 에너지 협력 강화 기대

미국산 LNG 비중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도입선을 조정하고, 원자력 파트너십에 따라 미국 진출 가능성 제고

- 한국은 1차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원유를 비롯하여 LNG(액화천연가스)¹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
 - 2024년 미국산 원유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고, LNG 수입(2023년 기준) 역시 미국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11.6%까지 확대
-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규모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2024년 기준, 약 100GW인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는 등 원자력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확대로 한미 원전 협력 필요성 기대
- 한미관세협상에 따라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협의에 이어 알래스카 석유,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자원 협력 강조
 -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기업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간 330만 톤 규모의 LNG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존 중동산 일부 물량을 미국산으로 도입선을 조정하는 것
- 소형모듈원자로(SMR)¹ 등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기업 간 MOU 체결
 -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협력 추진

원유(좌) 및 LNG(우) 주요 수입국 비중²



Source: 통계청, Statista,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LNG(Liquefied Natural Gas)
 Note2: 원유는 2024년 기준, LNG는 2023년 기준

연간 미국산 에너지 수입 규모²

구분	기준	향후 (억 달러)
원유+석유	150	187.5
LPG	45	
LNG	31	62.5
계	226	250

Source: 통계청,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SMR(Small Modular Reactor)
 Note2: 한미관세협상 결과 기준(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매년 약 250억 달러 규모 수입, 그 중 25%는 LNG)

한미 원자력 주요 MOU 체결 현황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

• 한국은 X-energy의 대표모델 Xe-100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협력, AWS는 데이터 센터 예비 수요자로 참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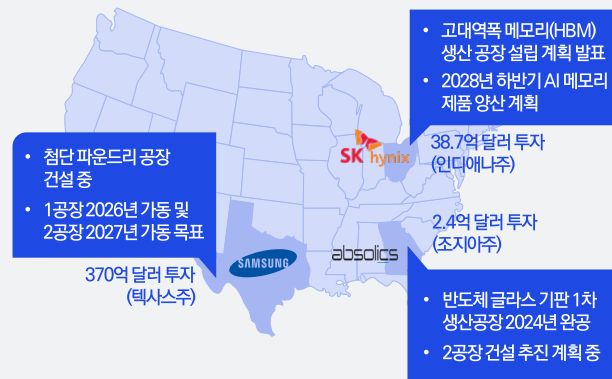
반도체 》 현지 투자 확약을 통한 관세 면제와 최혜국 대우 기반 품목 관세 대응

현지 투자 확약 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 면제와 한미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 기반 관세 대응

-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100% 부과할 예정임을 발표(2025년 8월 6일)하였으나, 대미 투자에 따른 관세 면제와 최혜국 대우 합의를 기반으로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관세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
 -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반도체 분야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2025년 8월 6일), 한국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 투자를 집행 중이거나 확정 발표하여 품목별 관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전망
 - 한미정상회담 기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참여하여 AI 반도체 중심의 한미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 추가 논의 진행 (신규 계약 체결 및 투자 계획 발표는 없음)
 - 2026년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텍사스주) 신설 투자와 SK하이닉스의 2028년 가동 예정인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인디애나주) 신규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추진
 - SKC의 자회사 애플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반도체 기판 생산 공장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소·부·장 시장 공략
 - 한미관세협상(2025년 7월)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합의되었으며, 미국과 EU가 합의한 반도체 품목 관세 15% 수준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

- 대미 투자 기반 한국 생산품의 관세 면제와 함께 현지 공장 활성화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재협상 요구에 대한 기업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파운드리 공장(텍사스주 오스틴시, 테일러시)에서 애플(2025년 8월 7일 발표)과 테슬라(165억 달러 규모, 2025년 7월 28일 발표)의 차세대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
 -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2025년 6월 발표)하며 현금 공여가 아닌 주식 매입 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공개(2025년 8월 20일)하여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향방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한국 반도체 대미 투자 현황 및 미국 정부 보조금 예정 규모



기업	대미 투자 (달러)	보조금 (달러)
삼성전자	370억 (2030년까지 예상)	47.5억
SK 하이닉스	38.7억 (2028년까지 예상)	4.6억
Absolics (SKC 자회사)	2.4억 (집행 완료)	최대 7,500만 2025년 5월 1차 4,000만 달러 수령 완료 2차 일정 미공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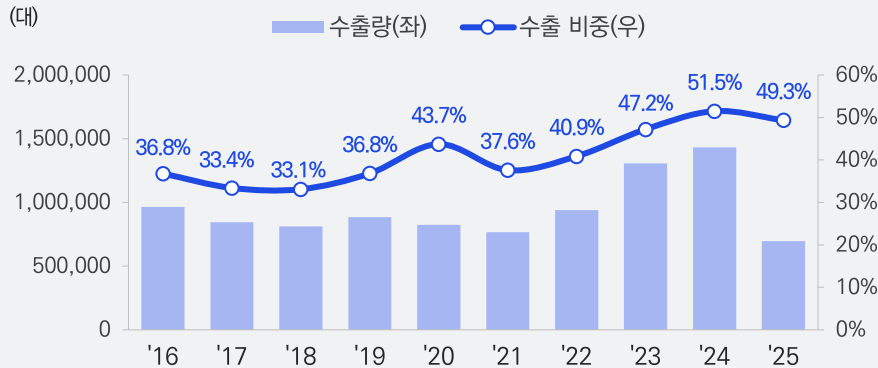
자동차 》 최소한의 수출 경쟁력 확보, 돌파구는 여전히 필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산업, 최소한의 수출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여전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 2024년 한국 자동차산업, 높은 미국 수출량 기반 무역흑자 실현

- 한국 완성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해 2024년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은 51.5% 차지.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36.5%로 한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며 부품 수출도 확대
- 한국무역협회 발표 기준, 2024년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429억 달러 수출, 25억 달러 수입하여 404억 달러 흑자 실현

한국 완성차의 대미 수출량 및 비중 추이



Sourc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Note: 2025년 데이터는 6월까지 포함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 15% 적용 최종 확인

- 15% 관세 적용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확인되며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 조성된 데 의의. 단, 2025년 8월 26일 기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미정으로 모니터링 필요

■ 국내 기업, 미국 정부 대응 및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대미 투자로 돌파구 마련

- 자동차, 제철, 로봇 등 산업에서 미국 정부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총 26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밸류체인 구축할 뿐 아니라 로봇 공장 신설해 로봇 생태계 마련도 가속화할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투자 패키지¹

구분	대미 투자 계획	투자금액
현대자동차	•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 능력 확대하여 연간 30만 대 생산 목표	2028년까지 260억 달러
기아자동차	• 전기차의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40%까지 증가 계획	
현대제철	•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북미 현지 생산 지원	
기타	• 3만 대 규모 로봇 공장 신설을 비롯 로봇틱스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력 • 에너지 인프라 설립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1: 2025년 3월 발표한 210억 달러 투자 계획에서 50억 달러 증액한 규모로 2025년 8월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발표

Source: 산업연구원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25.06),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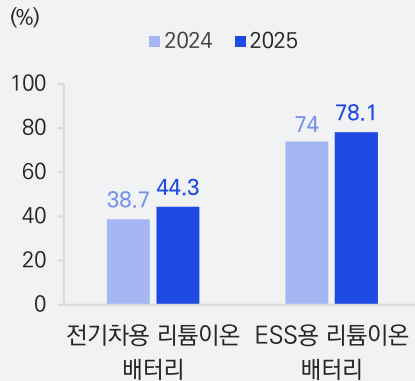
이차전지 》 현지 생산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K-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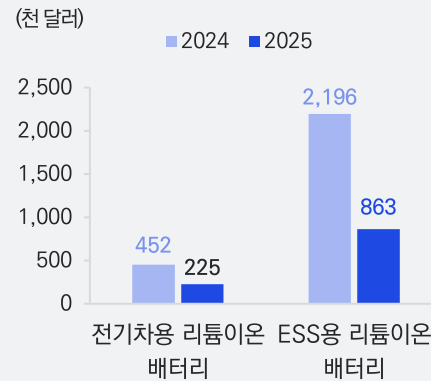
■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배제 기조로 국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은 호조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38.7%에서 2025년 44.3%로 증가했으며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74.0%에서 2025년 78.1%로 상승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미국 진출 가속화,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현지 공장 건설은 소재 및 부품 수출도 견인

리튬이온 배터리 대미 수출 비중



리튬이온 배터리 대미 수출금액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25년은 6월 누적 기준, HS코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8506.20)·ESS용 리튬이온 배터리(8506.30) 기준

■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능력 강화에 한미 양국의 의견 일치

-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의 경제사절단은 첨단산업(반도체, AI, 바이오), 전략산업(조선, 원자력, 방산), 공급망(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
- K-배터리 3사가 속한 그룹 총수가 모두 참여, 각 사 주력 사업 분야에서 미국 투자 확대 의지를 밝혀, K-배터리 3사의 현지 생산 능력 확대 가능성 존재. 2025년 08월 기준(운영+계획 포함) LG에너지솔루션 4곳의 합작공장 생산 능력은 모두 연산 169GWh, SK은 4곳의 생산 능력은 연산 162GWh, 삼성SDI는 연산 36GWh 계획

K-배터리 미국 현지화 동향

한미 파트너십을 토대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

전기차용 배터리 미국 현지 생산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내 7개 공장 운영 예정(단독(3), 합작(4)¹⁾)
- SK은: 미국 내 6개 공장 운영 예정 (단독(2), 합작(4)²⁾)
- 삼성SDI: 미국 내 3개 공장 운영 예정 (합작(3)³⁾)

ESS용 배터리 미국 현지 생산

- LG에너지솔루션: '25년 말 17GWh, '26년 30GWh로 확대
- SK은: '25년부터 LFP 기반 ESS용 배터리 생산 예정
- 삼성SDI: '25년 내 ESS 배터리 현지 양산체제 구축 및 생산 시작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1: 합작 파트너사 및 개별 합작공장 개수는 GM(2), 현대(1), 현대자동차(1)

Note2: 합작 파트너사 및 개별 합작공장 개수는 포드(2), 현대자동차(1)

Note3: 합작 파트너사 및 개별 합작공장 개수는 스텔란티스(2), GM(1)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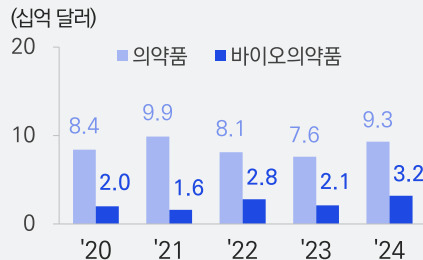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제약·바이오 《 지속되는 의약품 관세 긴장감 속 바이오 분야 협력 주목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의약품 대상 고율 관세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미 투자 적극 검토

- 2024년 기준, 한국 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2.7% 증가한 약 93억 달러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한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 1위¹
 - 미국의 경우 2023~2024년 수출 비중 14.9%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년대비 45.1%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
-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럽, 중국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만큼 수입 의약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규모는 약 1.87%(16위)로 상위권 교역 국가는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 CMO² 등의 한국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Source: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의약품(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포함), 무역수지(수출실적-수입실적)
 Note2: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 생산)

의약품 수출 비중 상위 5개국 ('23~'24)



- 의약품 관세 등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기술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등이 논의되며 바이오 분야 한미 협력 기대
 -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서 공동 R&D 및 기술 협력 확대 등 중요성 부각
-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을 비롯하여 바이오 협력 고도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 등 대미 투자 검토 및 추진
 - 미국은 의약품 핵심 원료를 포함하여 필수약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 내 생산 증강 및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사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기업 역시 대미 투자로 협력 의지 표명

한국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별 대미 투자 동향

기업명	대미 투자 동향
셀트리온	• 2년치 재고의 미국 이전 및 미국 판매 제품에 대해 현지 CMO社 계약 확대 •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 가능성 등 대미 투자 검토 중
SK바이오팜	• FDA(미국 식품의약국) 심사를 마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거점 확보하여 CMO 활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농식품 》 한국 농가 보호선은 유지됐으나, 추후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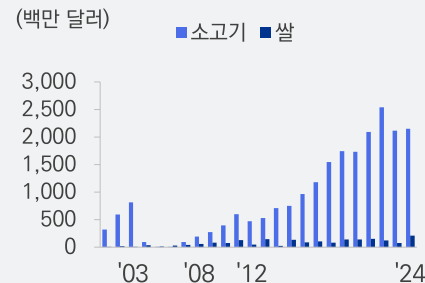
쌀·소고기 레드라인 고수 ... 한국산 농식품은 추가 관세 15% 적용 유지

- 회담 직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기존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된 쌀·소고기 레드라인 유지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한국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고려해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
 -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다만 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하며 미국 행정부는 농민과 제조업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향후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참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타임라인 및 소고기·쌀 수입액 추이

- 2001 •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시
- 2003 • 광우병 파동에 따라 수입 중단
- 2008 •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재개
*30개월 미만 쇠고기(12)에 한해 수입 허용
- 2012 •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 관세 점진적 인하 합의
*기준 40% 수준 → 37.3%('12) → 무관세('26)
- 2025 •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 포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유지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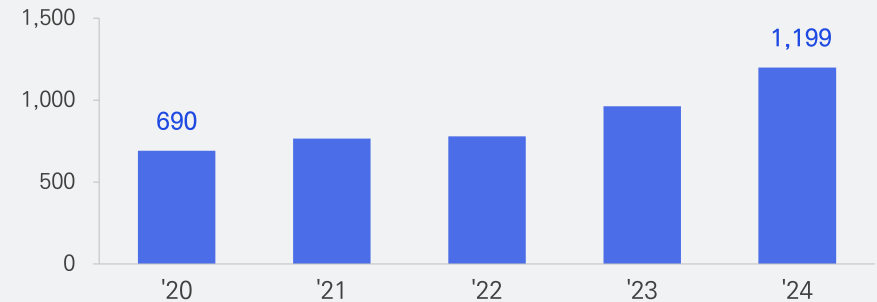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HS코드 쌀(1006), 소고기(0201, 0202) 대상

■ 한국산 농식품 추가 관세 15% ... K-푸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2025년 7월 합의된 한미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의 대미 수출 품목에 15%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농식품 관련 추가 논의 없이 기존 내용을 유지하기로 합의
-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마진 압박은 한국 농식품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참고] 주요 가공식품 대미 수출액 추이

(백만 달러)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분석 대상은 HS코드 기준 곡물·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방류(19), 채소, 과일, 견과류,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20), 각종 조제식료품(21)을 포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디지털 》 디지털·AI 협력 논의 …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 압력은 확대 전망

디지털
산업 협력

디지털·AI 분야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확대

- **네이버의 경제사절단 참여 … 한미 디지털·AI 분야 협력 강화 및 사업 확대 논의**
 - 2025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젠스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 참여로 AI 등 첨단 기술을 포함한 IT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또한 이루어짐
 - 네이버 최수연 대표 또한 2025년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의 인터넷·빅테크 기업 대표로 참여하며 향후 디지털 및 AI 분야에서의 한미 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네이버는 2025년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투자 법인 ‘네이버벤처스’를 설립해 AI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 했으며, 포시마크 인수(2023년)와 웹툰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2024년)을 통해 미국 커머스·콘텐츠 및 데이터 시장 공략. 이를 바탕으로 향후 AI를 비롯한 북미 사업 협력과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

[참고] 네이버의 주요 북미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 분야	최근 북미 사업 내용
AI	- 2025년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전략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하고 글로벌 AI 스타트업 발굴 및 AI 기술 생태계 확장에 주력 - 2025년 5월 미국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하여 ‘소버린 AI’ 기술을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수출
커머스	- 2023년 1월 북미 패션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
콘텐츠	- 2024년 6월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

디지털
비관세장벽

미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 지속될 전망

- **한국 온플법·구글지도반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회담 직전까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따른 거대 플랫폼 독점 규제 도입 논의 및 정부의 구글 고정밀(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가 지속됨
 - 미국은 한국 온플법을 구글·애플 등 자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구글 지도 반출 제한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차단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며 시정 압력 제기
 - 향후 미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가 이어지며 한국 IT뿐 아니라 모빌리티, 이커머스, 핀테크, 게임·미디어, 관광 등 유관 산업에 영향 불가피할 전망

한국 온플법·구글지도반출 이슈에 따른 한국 산업별 기대효과 및 우려 요인

	한국 산업	기대효과	우려 요인
한국 온플법 무산·축소 시	ICT·플랫폼	대형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독과점 심화, 수수료·광고비 인상, 불공정 조건 우려 및 해외 거대 플랫폼의 시장 잠식 우려
	이커머스	플랫폼 정책 설계의 자율성 확대	
	핀테크	이용자 기반 확장, 데이터 활용 확대	
	게임·미디어	크로스보더 출시 용이	
	한국 산업	기대효과	우려 요인
지도 데이터의 구글 반출 허용 시	ICT·플랫폼	글로벌 앱, 서비스와의 연동성 강화	관련 서비스 시장 점유율 및 수익 축소 우려
	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 해외 진출 유리	데이터 독자 경쟁력 약화
	관광·물류	외국인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	데이터의 해외 빅테크 플랫폼 집중 우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한미정상회담 Overview	2
II.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	7
III.	결론 및 시사점	18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산업 구분		업종별 주요 내용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조선	MASGA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조선·해양 인프라 투자 및 MRO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미국 내 조선소 합작·공동 투자로 현지화와 분업을 병행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 - 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종에 선제적 투자와 기술 리더십 강화
	방산	- K-방산의 2020~2024년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2.2%로 전 세계 10위 기록 - 미국, 세계 최대 국방 예산 지출 국가로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 필요	한국은 미국 핵심 방위산업 분야로 부상되는 미사일 방어체계·핵전력 현대화·재래식 전력의 전투 수행 능력 고도화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에너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협의에 이어 알래스카 LNG 등 미국산 자원 협력 강조와 함께 SMR 등 한미 기업간 원자력 분야 MOU 체결	미국산 LNG 비중 확대 등 에너지 도입선 조정을 검토하고, 미국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 기회 모색
	반도체	대미 투자 확약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와 한미 최혜국 대우 합의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부 규정은 추후 발표 모니터링 필요	- 미국 현지 생산 설비 관련 정교한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공략 -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및 보조금 정책 기조 등 선제적 대응책 검토 필요
	자동차	한국 완성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해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이 51.5% 차지 및 한국 자동차 산업 대미 무역 흑자 404억 달러 기록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산업에게 15% 관세는 최소한의 수출 경쟁력 확보 수준. 따라서 적극적인 대미 투자로 돌파구 모색 중요
	이차전지	-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배제 기조는 한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에 호조로 작용 -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대미 수출 비중 증가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해 K-배터리 수출처로서 미국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뿐 아니라 ESS에서 기회 발굴
	제약·바이오	한국 의약품 수출실적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단계적 인상 계획은 다소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 등 글로벌 제조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미 투자 적극 검토 및 추진 필요
	농식품	전반적으로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 대미 수출 한국 농식품에는 15% 추가 관세가 적용	한국 식품업체는 미국 내 OEM업체 활용, 공장 설립 등 현지 생산 라인 구축으로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회피 수단을 강구할 필요
	디지털	- 네이버 등 한국 IT 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로 한미 디지털·AI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한국 온플법·구글지도반출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 압력 지속 확대될 전망	- 글로벌 파트너십 적극 모색을 통한 AI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영향력 확대 - 규제 변화 관련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고, 자체 데이터·인프라 경쟁력을 제고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한상일

부대표

T 02-2112-0832

E sangilha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게임·엔터테인먼트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